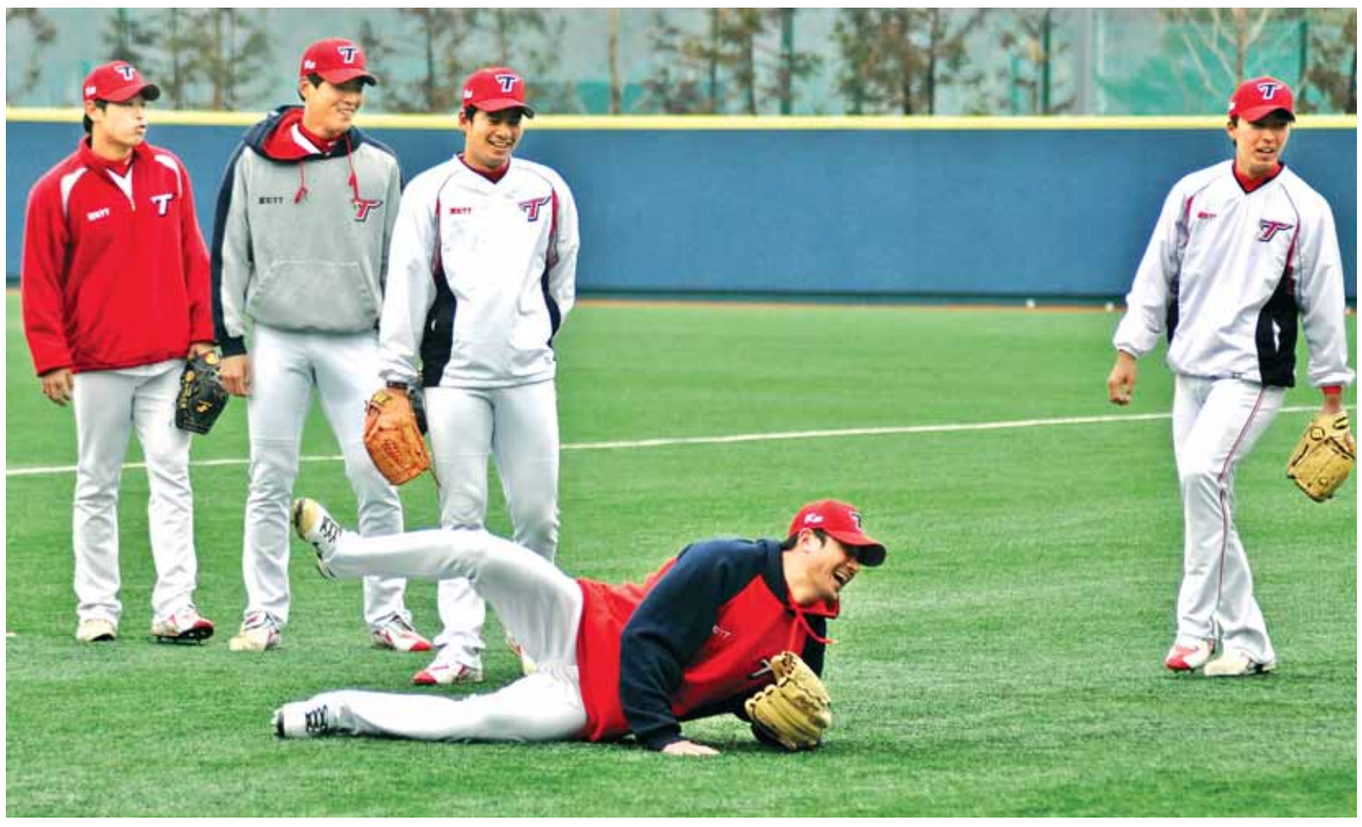
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13일 KIA 함평 전용구장에서 진행된 훈련에서 서재응(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공을 잡으려다 넘어진 뒤 웃고 있다. 이날 무등경기장에서 예정됐던 KIA와 SK의 시범경기는 우천으로 취소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연습경기 3승1무9패 → 시범경기 3연승

달라진 KIA … 올 시즌 심상찮다

투·타 완벽 조화 속 수비·불펜도 기대이상

SUN "실패가 약 … 준비 했던 만큼 좋아져"

KIA의 3연승을 보는 이들의 표정이 미묘하다.

KIA는 지난 9일 개막한 시범경기에서 투·타의 완벽한 조화를 자랑하며 3경기 모두 승리를 가져왔다.

적응을 끝낸 김주찬이 타선에 새바람을 불어넣었고, 양현종·소사·임준섭의 선발 테스트도 성공으로 끝났다. 수비도 완벽에 가깝다. 불펜도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래서 KIA팬들은 불안(?)하다.

KIA는 지난 오키나와 캠프에서 13차례 연습경기를 가졌다. 결과는 3승1무9패. 지난해 KIA의 패배 공식이 그대로 반영된 역전패 일색이었다. 타선이 터지면 마운드가 무너졌고, 호투 퍼레이드가 이어지면 타선이 침묵했다. 무뎌진 창과 뒷심 부족의 마운드로 한숨을 유발 했던 KIA가 귀국 후 1주일도 안돼 돌변했다.

같은 선수, 다른 결과에 지켜보는 이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왠지 불안하다. 오버 페이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지만 선동열 감독의 표정은 밝다.

연패 도중에도 "안 좋은 부분은 빨리 나오는 게 낫다. 시즌 전에 대비를 하는 게 낫다"고 느긋한 모습이었던 선 감독은 "실패가 약이 됐다"고 설명한다.

선 감독은 "오키나와 연습경기에서 안 좋은 게 다 나왔다. 이기고 있다가 역전되고, 에러해서 점수 주고, 초반에 점수 빼고 나서 역전 허용하고 지난해와 같은 패턴이었다. 막판에 짜증을 많이 내서 코칭스태프가 상당히 긴장들 했다"고 웃으며 "전지훈련 끝내면서 선수들에게 많은 훈련을 하고 준비를 했던 만큼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KIA는 마무리 캠프에서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했다. 스프링 캠프까지 투수들은 4000개가 넘는 공을 던졌다. 선 감독이 공격은 물론 수비와 주루까지 강조하면서 야수들도 예년보다 고된 훈련을 치르면서 캠프 막바지에 이르러 선수들의 컨디션도 바닥을 헤맸다.

선 감독은 "훈련도 많이 했고 선수들 스스로 실패에 대한 문제점을 깨달았다.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긴 했다. 그 시점이 언제일까 생각을 했는데 빨리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1점 차 승부에 강한팀, 1점의 승부를 지킬 수 있고 후반에 1점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력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력 유지'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부상. 겨우내 강도높은 훈련이 계속됐던 만큼 시범경기에서는 '컨디션 회복과 감각 유지'를 목표로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14·15일 이틀 경기가 없는 KIA지만 우천으로 SK와의 시범경기가 취소됐던 13일, 선수단은 오전 훈련으로 일과를 끝냈다. 15일에는 아예 훈련 없이 하루를 쉴 예정이다.

무기력함을 털어내고 호랑이 본성을 깨운 KIA가 본무대까지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추신수 시범경기 첫 홈런 '쾅'

LA 다저스 조시 베켓 상대

신시내티 역전승 이끌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의 '공격 첨병' 추신수(31)가 시범경기 첫 홈런을 터트리고 역전승의 발판을 놓았다.

추신수는 13일 미국 애리조나주 굿이어의 굿이어 볼파크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의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신시내티가 0-1로 뒤진 3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 우월 솔로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1사 후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볼카운트 2-2에서 다저스 선발 조시 베켓의 5구째를 받아쳐 오른쪽 펜스를 넘겼다. 추신수의 시범경기 첫 홈런이다. 6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3타수 1안타)부터 시범경기 3경기 연속, 7일 캐나다 윌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과의 연습경기(3타수 3안타)를 포함하면 최근 4경기 연속 안타다.

2타수 1안타를 치고 1타점을 올린 추신수는 시범경기에서 타율 0.429(21타수 9안타)에 1홈런 2타점을 기록 중이다. 신시내티는 6-2로 역전승했다.

탬파베이 레이스의 내야수 이학주(23)는 시범경기에서 두 번째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지만 부진했다.

이학주는 플로리다주 포트샬럿의 샬럿 스포츠 파크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의 시범경기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 3타수 무안타로 물러났다. 한 차례 삼진도 당했다. 0-0으로 맞선 8회초 1사 1, 3루에서는 슬레이드 히스콧의 타구를 놓치며 결승점을 내줬다. 양키스가 3-1로 이겼다.

/연합뉴스

김연아 '쇼트 연습' 완벽

트리플 러츠 가볍게 성공

15일 새벽 싱글연기 도전

'피겨 여왕' 김연아(23)가 201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 공식 연습에서 프리스케이팅에 이어 쇼트프로그램도 완벽하게 소화하며 왕좌 탈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김연아는 12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버드와이저 가든스에서 진행된 대회 여자 싱글 이틀째 공식 연습에서 쇼트프로그램인 '뱀파이어의 키스'를 중심으로 훈련에 나섰다.

검은색 트레이닝복과 흰색 상의를 입고 링크에 들어선 김연아는 연습 5조에 속한 나머지 4명의 선수와 함께 가볍게 은반을 활주하며 몸을 풀다가 재킷을 벗고 트리플 러츠 점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갔다.

앞선 선수들이 훈련하느라 빙질이 고르지 못한 탓인지 초반 세 차례 트리플 러츠 점프 시도에서 도약하지 못하고 계속 멈칫하던 김연아는 네 번째 시도에서 깨끗하게 트리플 러츠를 성공했다. 이어 '뱀파이어의 키스'의 배경음악이 흘러나오자 김연아는 특유의 부드러운 몸놀림으로 자신의 동작을 점검했다.

프리스케이팅을 연마했던 첫날 공식 연습에서 스파이럴과 스핀, 스텝 시퀀스를 대부분 건너뛰고 점프 훈련에만 주력했던 것과는 달리 김연아는 이날 쇼트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첫 점프이자 여자 선수가 뛸 수 있는 점프 기술 중 가장 기본점이 높은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기본점 10.10점)를 가볍게 뛰어오른 김연아는 이어진 트리플 플립도 실수 없이 마쳤다.

플라잉 카멜 스핀과 이너바우어에 이어 더블 악셀도 언제나 그렇듯 가볍게 처리했다. 레이백 스핀과 스텝 시퀀스도 물 흐르듯 이어졌고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을 마지막으로 김연아가 연기를 마치자 관중석에서는 큰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김연아는 한국시간으로 15일 새벽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을 연기한다.

/연합뉴스

외면…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연아·마오

피겨여왕 김연아와 일본의 아사다 마오가 13일 201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 버드와이저 가든스에서 훈련하며 서로 외면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시 분노의 2골

바르셀로나, 밀란 4-0 제압하고 챔스 8강 진출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로 꼽히는 리오넬 메시(26·FC바르셀로나)는 최근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만한 일들을 연이어 겪었다.

지난달 21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AC밀란(이탈리아)과의 경기에서 메시는 침묵을 지켰다. 팀은 0-2로 완패했다. 6일 후 팀의 숙적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의 맞대결에서도 메시는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8)가 2골을 터뜨리는 가운데 골을 올리지 못했다. 팀은 또 졌다. 메시는 이달 3일에 펼쳐진 레알 마드리드와의 재대결에서 한 골을 기록했다. 그러나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위기의 시발점이었던 AC밀란과의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재대결에서 메시가 전설의 모습을 되찾았다.

메시는 1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프누 경기장에서 열린 2012-201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AC밀란과의 16강 2차전에서 전반 5분과 40분에 골을 터뜨려 승부의 추를 기울게 했다.

메시의 골로 사기를 끌어올린 바르셀로나는 후반전 들어 다비드 비야와 호르디 알바의 연속골에 힘입어 4-0 승리를 거뒀다. 바르셀로나는 1, 2차전 합계 4-2로 8강에 올랐다.

메시는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7골을 올려 득점 부문 3위로 껑충 뛰었다.

/연합뉴스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역 525-4835 | 송정역 941-3278

영주 부석사 선비촌 기차여행
출발일 3월 22일(금) 23:50경 광주역 출발(무박 2일)
여행비 68,000원
여행코스 부석사/소수서원/소수박물관/선비촌/죽령옛길/풍기인삼시장 및 5일장
포함사항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버스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불포함 식사비
특전 영주시에서 인삼비누 셋트 증정(15,000원 상당)

진해군항제 벚꽃축제 기차여행
출발일 4월 4일(목) / 4월 9일(화) 광주역 출발(당일)
여행비 37,000원
여행코스 해군사관학교/해군기지사령부/여좌천(내수면연구소)/제황산공원
포함사항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여행자보험료
불포함 식사비